

우리나라 기업 중 20%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

특허청, 산업자원부, 노동부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중 19.2%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4년 7월 기준, '01년 조사 결과 15.6%에서 3.6% 포인트 상승).

그러나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중에서도 핵심적 보상제도인 실시·처분보상을 도입한 비율은

각각 15.4%, 4.2%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사된 실시기업들 중 상당수(37.2%)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후 기업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미실시 기업들 중 향후에도 '도입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기업도 5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연구자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도의 장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도의 확산을 도모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도 착실히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노숙자에서 사장으로 재기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2004년 발명 신제품 전시회(INPEX 2004)'에서 대상과 미주지역 최고발명상 등을 수상한 쥬데코리의 '에스보드'.

두 바퀴 스케이트 보드(상품명 에스보드)라는 히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레프츠용품 벤처기업 '쥬데코리'의 강신기 대표이사도 한때 서울역 지하도를 전전하던 노숙자였다. 그런 그가 미국 아이디어 상품 전문기업인 CPG사와 에스보드의 미국·유럽 제조권 및 판권을 위임하는 계약을 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향후 3~4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적어도 3백만대 이상 팔려 로열티로 1백20억원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최신 발명품 전시회 'INPEX 2004'에서 에스보드가 대상을 비롯한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부문 금상 등 5관왕을 차지한 것이 기회

가 됐다.

노숙자였다가 아이디어 하나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뚫은 기업인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강 대표는 천안공고(기계 전공)를 졸업하고 수자원공사에 입사했다. 그러나 개인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에 93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뒀다.

돌침대, 옥돌매트, 믹서 등 각종 중소기업 제품을 싼 값에 구매해 전국을 돌며 팔아 10일 만에 순수익 5천만원을 올리기도 하는 등 전국 13개 도시에 대리점까지 내고 사업을 확장하던 중 외환위기를 맞았다.

수금이 안 돼 지방에 내려가 보니 몇몇 대리점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전 재산 7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가산을 정리하고 빚쟁이를 피해 아내와 1남1녀를 처가가 있는 충주로 내려 보내고 나니 자신은 정작 갈 곳이 없었다.

98년 2월부터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던 강 대표는 재기의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새벽 인력시장을 열심히 찾았다. 노숙을 한 지 두달을 넘길 무렵 서울역 지하도에서 우연히 만난 돌침대 제조업체 사장의 손에 이끌려 돌침대, 에어침대 판매에 나섰다.

서울 포이동의 월 10만원짜리 고시원으로 숙소를 정하고 돌침대 판매로 가까스로 생계를 꾸려가던

2001년 가을 그의 머릿속에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키보드'가 국내를 휩쓸던 때였다. 강 대표는 '스케이트 보드에 네 바퀴 대신 두 바퀴만 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곧바로 베니어판을 갖고 혼자 숙소에서 작업에 들어갔다. 양발을 지탱하는 부위의 보드를 분리하고 이음새로 연결한 뒤 올라타더니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웠다.

강 대표는 즉시 특허를 출원한 뒤 지난해 2월 손으로 만든 시제품을 들고 아는 선배가 운영하는 금형회사인 명강기업을 찾아갔다. 강 대표는 '그 선배에게 '생산비가 없다. 금형기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선배가 제품을 찬찬히 살펴본 뒤 흔쾌히 허락했다'며 지금도 에스보드는 명강기업이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난생 처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해 12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아 과학기술진흥기금 15억원을 대출받음으로써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았다. 또한 국내외 각종 발명품 전시회에서도 상을 휩쓸었다.

최근 역삼동의 12평짜리 오피스텔로 사무실을 옮긴 강 대표는 '서울역 지하도에 비하면 왕궁'이라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특허청 '제2회 발명장학생 선발' 계획

특허청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나갈 발명 꿈나무를 발굴하고 우수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제2회 발명장학생'을 선발한다. 우수 발명학생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명활동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이번 사업의 선발대상은 전국 중·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으로 과학기술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외되며, 최근 2년간의 발명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발명장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의 수와 수준에 따라 규모에 변동이 가능하지만 대학생의 경우 20명 이내의 1등급 발명장학생에게는 3백만원씩, 30명 이내의 2등급 발명장학생에게는 2백만원씩, 50명 이내의 3등급 발명장학생에게는 1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등학생은 1등급 발명장학생 20명에게 2백만원씩, 2등급 발명장학생 30명에게 1백50만원씩, 3등급 발명장학생 50명에게는 1백만원씩의 장학금이 각각 지급된다. 중학생은 1등급(20명)과 2등급(30명), 3등급(50명) 발명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각각 1백만원과 70만원, 50만원씩의 장학금이 주어지게 되고, 초·중·고등 부문 최다 발명장학생 배출 지도교사를 선정해 1등급 3명의 교사에게는 3백만원씩, 2등급 3명의 교사에게는 2백만원씩의 발명장학금이 전해지게 된다.

참가기간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이번 발명장학생 선발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발명장학생 선발대회 신청서 1부,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개요 1부, 학생발명대회 참가 및 수상실적 1부, 발명활동 실적내역 1부, 재학증명서 또는 청소년증 1부, 통장사본 1부를 한국발명진흥회(문의 02-3459-2768)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대회가 학생들의 발명욕 고취를 위하여 개최되는 만큼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1회 발명장학생 선발대회'에서 학생들과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내빈들.

웰빙 바람 타고 '황토 섬유' 특허출원 급증

최근 황토가 건강이나 피부미용에 좋다는 효과가 입증되고 웰빙 바람이 불면서 일반섬유에 황토를 염색하거나 코팅해 만든 황토섬유와 관련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황토섬유 관련 특허는 지난 '96년 처음 출원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백17건이 출원됐으며, '99년 63건, 2000년 70건, 2001년 83건, 2002년 1백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003년의 경우 현재까지 기술이 공개된 출원건수만 86건에 이르러 있으며 미공개 건을 합해 1백60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적용분야별로는 침구용 매트 및 시트가 4백3건으로서 전체의 77.9%를 차지했으며, 셔츠 및 팬티 45건(8.7%), 양말 및 스타킹 34건(6.7%), 미용 마스크 22건(4.3%), 브래지어 13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기술로는 은이온과 황토분

말을 양말 바닥에 발라 무좀을 억제시키는 은이온 황토 양말, 황토와 현미를 혼합해 미용효과를 높인 마스크팩, 황토에 솔잎과 쑥을 혼합해 도포한 원적외선 섬유원단 등이 꼽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는 황토를 섬유에 부착시켜 식물의 재배숙성을 좋게 하는 식물재배용 배지도 개발하고 있다'며 '황토섬유 개발이 식물재배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알려드립니다

전국 순회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개최 안내

지역	일시	장소
경상남도 창원	9월 3일(금) 오후2시	경상남도 여성회관
전라북도 전주	9월 7일(화) 오후2시	전라북도 여성회관
안성기능대학	9월 9일(목) 오후2시	안성여자기능대학 강당
서울시	10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북부 여성발전센터

※ 각 지역 회원 및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